

탐착 않는다면 거리낄게 뭐가



사찰재정 투명화

최근 조계사, 불국사 등의 삼보정재 유실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한번 사찰재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재가연대는 사찰재정 투명화와 사찰운영에 사부대중 참여를 촉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삼보정재는 주지등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재물이 아니다. 불교계 전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교육과 포교 등 공익에 쓰여져야 한다. 투명한 재정관리로 더 이상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스님과 신도 모두 의식을 바꿔야 한다. 사찰재정투명화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경전의 말씀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리석은 사람들은 눈뜨지 못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죽더라도 태어나는 곳은 서로 다르리라. <별역 집아함경>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 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소유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수타니파타>

나는 왕자의 지위를 문틈에 비치는 먼지처럼 보고, 금이나 옥 따위의 보배를 가진 기왓장처럼 보며, 비단옷을 흰 누더기 같이 보고, 삼천대천세계를 한 알의 겨자씨같이 본다. 열반을 아침자녁으로 깨어있는 것과 같이 보고, 평등을 참다운 경지로 보며, 교화 퍼는 일은 사찰 푸른 나무와 같이 본다. <사십이장경>

수행인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꼭 바른 줄과 같아야 한다고 했으며, 바른 마음은 곧 도량이라고 하셨다. 이 몸에 탐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낄게 무엇인가. <선가귀감>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해방시키라. 그리고 존재하라. 누구의 말을 빌 것도 없이, 인간의 목표는 중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욱이 적게 가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다. <수타니파티>

너희를 비구는 계(戒)에 머무를 수 있게 되거든 마땅히 오근(五根)을 제어함으로써 방일(放逸)하여 오욕(五欲)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마치 소 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감시함으로써 소가 멋대로 날뛰어 남의 곡식을 못 먹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나운 말을 고삐로 견제하지 않을 경우, 말 쪽에서 도리어 사람을 끌고 가 구멍에 빠뜨리는 것 같으니라. <유교경>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 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화엄경>

항상 분소의(箕掃衣)를 걸치고 한 개뿐인 깨어진 발우를 지녀서, 나무 열매나 오이 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면, 그는 부처님네의 칭찬하는 바가 된다. <제법집요경>

차라리 큰 불구덩이에 들어갈지언정 탐욕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대승계경>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가 되어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놓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은 그 몸을 따라 주지 않는다. <생경>

분수법은 탐욕보다 두려운 것 없고, 공립보다 더 큰 배고픔 없다. 가난을 타하면서 베풀어 보시하지 않으면 가난의 두려움은 금생에나 내생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 나의 가르침을 어

열린마당

조계사 성역화 공청회

의견수렴 못했다

발표 끝나자 청중 자리며 토론 무산 "실무소위도 열지않고 공청회" 불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공청회가 7월27일 조계사 문화교 육관에서 열렸다. 그러나 예정했던 토론회가 청중 부족으로 무산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파행진행했다.

조계종총무원 주최, 한국건축역사학회와 한국박물관건축학회 공 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고산 총무원장의 법외와 총회의의 장 법등스님의 축사에 이어 '성역화 사업의 필요성(일철 총무원 재무부장)' '조계사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박언곤 홍익대학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성역화 사업의 필요성(일철 총무원 재무부장)' '조계사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박언곤 홍익대학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발표로 진행됐다.

3인의 발표 후 자유토론을 벌여 사부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발표가 끝나 후 대부분의 청중들이 자리를 떠 토론회는 무산됐다. 공청회에는 고산 총무원장과 법등 총회의장, 일철 총무원장, 불교신문사장 영담스님, 총무원 부장스님들과 재가총무원, 조계사 주변의 불교단체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나 토론회를 시작할 즈음에는 재무부장 일철, 호법부장 종고, 기획국장 정도, 총회의원 윤달스님과 재가총무원 및 재가단체 실무자 10여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이번 공청회에 대해 재가단체의 한 실무자는 "청사 신축을 비롯한 조계사 성역화 계획이 지난 2월부터 진행됐는데, 실무소위원회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이제 와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계사 성역화를 위한 전체적인 구상의 일환으로 청사 신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공청회.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일환인 회합을 위해서는 중도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7월27일 열린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산스님이 발언을 하는 모습.

△조계종의 한 신도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조감도를 보면 조계사 신행공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청사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걸맞게 계획단계부터 원로의원들과 조계사, 교구본사 주지, 총회의원, 조계사 신도, 재가신행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청회에서 고산스님은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성스러운 자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은 7월 23일 조계종 중앙총회 btm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위위원장과 문화부장에게 중단의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단의 의지를 얻어낸 셈이다. 4월7일부터 7월 16일까지 8차례 걸쳐 대책위원회를 열어온 특위는 그동안 불교TV의 경영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에만 치중해 왔기에 불교TV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는 원성을 사왔다. 물론 중앙총회에 속해 있는 특위로서는 상법상 불교TV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권



김주일 (취재2부 기자)

한은 없다. 하지만 30여명의 이 사중 16명이 조계종 스님인 것과 영상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불교TV를 강건너 불보듯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불자들의 목소리였다.

현재 불교TV의 경영 악화는 갈데까지 간 상태다. 지난 5월 허문도사장이 취임해 국민은행에서 성업공사로

해야 하는 본배망 사용료 8천만 원도 현재의 재정 수입으로선 지불하기 어렵다. 하나은행과 동원 파이낸스에 지급해야 할 악성부채 28억 원도 이미 만기일을 넘긴 상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불교TV로선 앞으로 1~2개월이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 중단은 그동안 보여왔던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btm 특위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자 추천을 비롯 후원법회 활성화, 재정 수입사업 확대 등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허문도사장도 역시 취임할 때 밝힌 2개월이내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jikim@buddhopia.com)

힘반은 불교TV특위

이관된 22억1천만원의 악성부채를 2009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성업공사측과 절충해 간신히 부도 위기는 넘겼지만 해결해야 될 부채는 산재해 있다.

우선 금호전기에 밀린 임대료 6억 1천만원을 8월말까지 갖지 않으면 당장 거리로 내몰아야 할 위급한 상황이다. 또 매달 지급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 탐영제방생 —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요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한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 433-2900, 0303 (0655) 432-0652, 0072

· 약도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평주 마이산

조계사 성역화 공청회 발표문 요지

"청정승가상 확립사업"

일철 (조계종 재무부장)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는 총무원장 고산스님 취임 이래 '초발심 회복'으로 돌아가 청정한 승가상을 확립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올해 발표한 중단의 7대 기초사업의 하나인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조계사 경내 환경 개선과 가람 배치·상징적 신행 공간 △총무원 청사 신축 계획·종합적인 행정, 업무 지역 △불교중앙박물관을 비롯한 문화회관, 불교회관 건립 계획·문제, 역사 지역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사업은 조계종의 교세와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청사의 신축 계획과 조계사 환경 개선을 연구 범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계획인 불교중앙박물관을 비롯한 문화회관과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도 포함하게 된다.

박언곤·서상우 두 교수의 연구결과는 향후 실시설계에 반영될 기본계획자료로 활용된다. 보다 상세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대웅전 중심 공간배치"

박언곤 (홍익대 교수)

현재 조계사 경내에는 대웅전과 덕왕전, 종루, 탑, 총무원이 있다. 조계사 담우와 조형물의 배치를 상단, 중단, 하단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대웅전과 덕왕전, 탑과 종루를 상단으로 구성했다. 대웅전은 북쪽에 배치시키고 탑을 그 앞에 두었으며, 덕왕전은 아미타불을 모셨으므로 서방정도를 의미하는 서쪽을 배치시키고, 종루는 대웅전 앞 서쪽에 두었다. 중단에는 지상 1층, 지하 1층의 전각을 두는데, 지상층에는 천불전, 지하층에는 지장전을 두되, 남쪽을 향해 배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천왕문은 사찰 성역의 외호역할을 하므로 신중단인 하단에 배치한다. 총무원이나 승방, 강당, 객사는 불보살단의 외곽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고, 승방과 객사는 일주문과 천왕문 근처 덕왕전 뒷편에 두어 하단에 스님들의 공간을 형성하여 불보살의 공간을 둘러싸도록 계획하였다. 강당은 대웅전의 뒤쪽, 즉 북쪽에 두어 대웅전과 강당, 총무원이 일직선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대사회활동 중심처로"

서상우 (국민대 교수)

조계종 본부(청사)는 △교육 포교 행정 문화의 중심이자 한국불교의 총본산 △수행도량으로서의 상징성 △불교의 대 사회적 활동의 중심처 △국내 외인의 순례 및 관광명소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실현하는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중단의 직영사찰인 조계사는 누구나 쉽게 찾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계사는 중단의 중심사찰답게 정비되어 성역화하는 내적 역할, 시민의 휴식처로서 제공되는 외적 역할의 수행이 요구된다. 또 인사동과 더불어 역사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도심의 오아시스가 되어 하며, 장기계획에 의한 불교복합문화공간은 불교 관련 역사와 문화예술을 보급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기대된다.

사업계획을 원활히 실현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위한 정책과 전담자가 필요하며, 사업비 마련과 신도들의 불사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신개발품 시·연·속·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속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뜸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각종질병 속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증
전립선	조루증	방광염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 가격 : 200,000원 (1set) 압축속 1개월분 (50,000원), 속뜸기일체, 안내책자 (12,000원) 포함

· 임금지점: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어래한방